

■ 주요 기사

○ 철도지하철 파업 관련(8건)

조선	부산 지하철, 파업 847명 직위해제
중앙	부산도시철도, 복귀 명령 거부한 848명 직위해제
동아	정부 “철도공, 이미 성과연봉제 도입… 파업은 불법” 성과연봉제 놓고 한치 양보없는 ‘끝장 결투’
매경	부산 지하철 파업참가 844명 전원 직위해제
한경	철도파업 노조원 871명 직위해제…”복귀 안하면 추가 징계“
한겨레	철도·지하철 등 무기한 파업 돌입…철도공사 노조간부 직위해제
경향	“불법 성과연봉제 철회” “불법파업 엄정 대응” 노·정 정면충돌

○ 日 외국인 노동자 수용 검토 관련(5건)

조선	日, 외국인 노동자 적극 수용 추진
중앙	일본, 정부가 나서 건설·요양 외국인 근로자 데려온다
매경	일손 부족한 일본…이민 빗장 더 푼다
한경	일본, 외국인 노동자에 문턱 낮춘다
경향	일본, 외국인 노동자 ‘공식 수용’ 검토

○ 가슴기살균제 성분 관련(6건)

조선	‘가슴기 살균제 성분’ 치약·화장품, 다른 제조사 10곳도 조사 아모레퍼시픽, 가슴기 살균제 성분 든 치약 11종 환불하기로
중앙	식기 세척제도 가슴기 살균제 성분 [취재일기] ‘가슴기 살균제’ 치약, 무해하면 끝인가
한경	“가슴기 살균제 사건 얼마나 됐다고…”
한겨레	‘아모레’ 치약 성분, 코리아나 등 21곳도 납품 받았다

■ 주요 칼럼 · 사실

○ 파업 선진화 관련(1건)

한경	[사설] 직장내 파업금지 등 파업 규칙 선진화가 화급하다
----	---

○ 일자리 창출 관련(1건)

매경	[박재현 칼럼] 글로벌 일자리를 만들자
----	---------------------------------------

○ 기후변화 협약 관련(1건)

한경	[천자 칼럼] 법정에 서는 CO₂
----	---

■ 언론별 동향

매체명	주 제	내 용	
조선	노동	제목	부산 지하철, 파업 847명 직위해제 A16면
		내용	정부가 이번 파업을 '불법 파업'으로 보고 있는 만큼 코레일은 노조 지도부 23명을 직위 해제했고, 부산교통공사도 파업에 참여한 847명을 28일 자로 직위 해제할 방침
	고용 복지	제목	日, 외국인 노동자 적극 수용 추진 A21면
		내용	저출산·초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로 고민하는 일본이 외국인 노동자를 적극 받아들이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7일 보도
	환경	제목	'가습기 살균제 성분' 치약·화장품, 다른 제조사 10곳도 조사 A16면
		내용	아모레퍼시픽이 만든 치약 11종에 가습기 살균제 성분(CMIT/MIT)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나 26일 회수 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다른 치약이나 구강청결제(가글액), 화장품 제조사 10곳에도 이 성분이 납품된 것으로 파악
		제목	아모레퍼시픽, 가습기 살균제 성분 든 치약 11종 환불하기로 B6면
		내용	아모레퍼시픽이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든 것으로 밝혀진 치약 제품에 대해 전량 환불 조치를 시행. 사과문을 통해 "원료 매입 단계부터 철저히 관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원료를 사용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힘
중앙	노동	제목	부산도시철도, 복귀 명령 거부한 848명 직위해제 A8면
		내용	철도노조와 지하철노조가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며 27일 오전 9시 무기한 파업에 돌입. 부산교통공사는 세 차례 업무 복귀 명령을 거부한 848명을 직위해제
	고용 복지	제목	일본, 정부가 나서 건설·요양 외국인 근로자 데려온다 A7면
		내용	일본 정부가 단순 근로 분야에서 사실상 외국인에게 문호를 개방. 지금까지 폐해가 많았던 민간 브로커의 개입을 차단하고 정부가 직접 대상 국가와 교섭해 외국 근로자를 받아들이는 방식을 검토
		제목	IT 일자리 일본에 많아요 채용박람회 늘린 코트라 E1면
	내용	KOTRA가 오사카에서 연 '한국인재 채용박람회'에서 일본 IT 서비스와 제조분야 기업 11개사가 참여해 우리나라 청년 인재 60여 명과 현장면접, 취업세미나를 진행	
	환경	제목	식기 세척제도 가습기 살균제 성분 A19면
		내용	가정에서 쓰는 식기용 세척제(2종)에도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CMIT·MIT' 사용이 허용돼온 것으로 나타남. 다만 흐르는 물에 충분히 행구면 인체엔 특별히 문제가 없음
제목	[취재일기] '가습기 살균제' 치약, 무해하면 끝인가 A29면		
내용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전 국민에게 일상적인 환경 노이로제를 안겨주고 있음. 식약처는 지금이라도 CMIT·MIT가 다른 치약에도 사용됐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함		

매체명	주 제	내 용	
동아	노동	제목	정부 “철도공, 이미 성과연봉제 도입… 파업은 불법” A12면
		내용	노동계는 성과연봉제 반대를 내세운 이번 파업이 합법이라고 주장하나, 정부는 서울과 부산 지하철 등의 파업은 정당성이 있지만 철도노조의 파업은 노조법에 따라 불법이라고 규정
		제목	성과연봉제 놓고 한치 양보없는 ‘끝장 결투’ A12면
		내용	정부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해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철밥통’을 깨고 청년채용도 늘리겠다는 명분을 내세운 반면, 노동계는 노조 영향력이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
		제목	“한국 생산직 71% 호봉급… 직무급 도입 필요” B3면
		내용	노동연구원 임금실태 조사, “경영지원직보다 25%p 높아… 생산성 떨어져 경쟁력 약화”
매경	노동	제목	부산 지하철 파업참가 844명 전원 직위해제 A2면
		내용	부산교통공사가 노조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27일 오후 1시 기준으로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 844명 전원을 직위해제 조치
	고용 복지	제목	일손 부족한 일본…이민 빚장 더 푼다 A8면
		내용	인구 감소로 생산인력 부족에 허덕이고 있는 일본이 당장 일손이 급한 간병·육아·건설 분야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대폭 받아들이기로 함
		제목	[박재현 칼럼] 글로벌 일자리를 만들자 A34면
		내용	15만명 이상 일자리가 부족하지만 새 일자리 창출은 서비스업 혁신과 노동개혁밖에 없지만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음. 해법은 국내에서 막힌 일자리를 해외에서 찾는 것
환경	제목	고령화·미세먼지 영향 한국인 폐렴사망 크게 늘어 A29면	
	내용	지난해 폐렴으로 사망한 사람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 황사나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호흡기질환이 많아진 탓	

매체명	주 제	내 용	
한경	노동	제목	철도파업 노조원 871명 직위해제…"복귀 안하면 추가 징계" 31면
		내용	부산교통공사, 파업 848명 전원. 코레일, 노조지도부 23명 징계. 참가율 30% 안팎…혼란 없었으나, 일반열차·화물운송은 일부 차질
		제목	발레오전장 호봉제 전격 폐지 31면
		내용	2010년 금속노조에서 탈퇴한 경주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 노조가 호봉제 폐지를 결의. 현대자동차 등 민주노총 산하 노조 대부분이 연공서열식 임금체계를 고집하며 강경 투쟁에 나선 것과는 정반대
	고용 복지	제목	[사설] 직장내 파업금지 등 파업 규칙 선진화가 화급하다 39면
		내용	파업의 룰도 이제는 선진화해야 한다. 일하기 싫은 근로자들은 피케팅도 파업도 회사 밖에서 하는 게 맞다. '무노무임'이나 '민형사상 책임'의 원칙도 지켜져야 함. 후진적 파업 관행의 개선이 시급
	환경	제목	일본, 외국인 노동자에 문턱 낮춘다 8면
		내용	일손 부족에 허덕이고 있는 일본이 외국인 노동자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연구자와 경영자 등 고급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해외 인력을 받아들였으나 외국 노동자에게도 이민 문호를 대폭 개방할 방침
		제목	"가습기 살균제 사건 얼마나 됐다고..." 21면
		내용	치약 샴푸 등의 계면활성제(거품을 내주는 성분)에 가습기 살균제 유독성분이 들어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당 기업들이 뭇매를 맞고 있음
한겨레	제목	[천자 칼럼] 법정에 서는 CO₂ 39면	
	내용	논란이 많은 파리 기후협약이 미국서 법정에 서게 됐음. 환경공포는 과장이며 미국 정부의 조치는 위헌이라는 게 쟁점	
한겨레	노동	제목	철도·지하철 등 무기한 파업 돌입…철도공사 노조간부 직위해제 12면
		내용	공공운수노조 5만여명 파업돌입했으나 정부는 철도노조 파업 불법 규정. 철도공사는 노조간부 23명 직위해제. 부산교통공사도 파업참가자 847명 직위해제함
	환경	제목	"여성임원 30% 할당제 도입이 목표입니다" 21면
		내용	최근 출범한 세계여성이사협회(WCD) 한국지부의 설립을 주도한 푸르덴셜생명 손병옥 회장과 '한경희생활과학' 한경희 대표는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만나 이같이 밝힘
한겨레	환경	제목	'아모레' 치약 성분, 코리아나 등 21곳도 납품 받았다 12면
		내용	미원상사, 가습기살균제 성분 함유 원료 22곳에 납품. 샴푸·구강청정제·거품 등 다양하게 쓰였을 우려. 정의당 이정미 의원 "식약처, 원료물질 전수 조사해야"한다고 주장

매체명	주 제	내 용	
경향	노동	제목	“ 불법 성과연봉제 철회 ” “ 불법파업 엄정 대응 ” 노·정 정면충돌 A10면
		내용	정부는 철도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며 재차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고, 노동계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고발하는 등 양측의 갈등이 격화
	고용 복지	제목	[국감 브리핑]“묵힌 연차 1억일 다 쓰면 21조 효과” A4면
		내용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27일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쓰지 못한 연차휴가를 모두 쓸 경우 20조원이 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를 공개
		제목	일본, 외국인 노동자 ‘공식 수용’ 검토 A14면
		내용	일본 정부는 27일 아베 총리가 의장을 맡은 ‘일하는 방식 개혁 실현회의’를 열고 건설·육아·간병 등 일손이 부족한 분야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시작

<끝>